

- 주요 뉴스: 미국 FOMC, 0.25%p 인상. 추가 금리인상 가능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 미국 '22년 12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금리인상에도 수요 우위 노동시장 지속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CPI), 전월비 상승세 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영향
 - OPEC+, 현행 감산 방침 유지 예상. 경기침체 우려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결과가 바둑기파적으로 해석되며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1%],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인식으로 22년 8월 이후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FOMC 경계감 및 보건관련주 약세 등으로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종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 등으로 큰 폭 하락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1.2%, 0.9%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폭 축소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

※ 원/달러 1M NDF환율(1221.1원, -10.2원) 0.7% 하락, 한국 CDS 보합

		2/1일	1/31일	전일대비			2/1일	1/3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19.2	4,076.6	1.05%	국채 금리 10y	미국	3.42%	3.51%	-9bp
	유럽	453.09	453.21	-0.03%		독일	2.28%	2.29%	-0bp
	중국	3,284.9	3,255.7	0.90%		영국	3.31%	3.33%	-2bp
	일본	27,347	27,327	0.07%		CDS 5y	한국	41bp	41bp
	한국	2,449.8	2,425.1	1.02%	중국		52bp	54bp	-2bp
	달러지수	101.14	102.10	-0.94%	위험 지표	EMBI+	-	374	-
유로화	1.0990	1.0863	1.17%	VIX		17.87	19.40	-7.89%	
환율	엔화	128.98	130.09	0.86%		WTI유	76.41	78.87	-3.12%
	위안화	6.7422	6.7553	0.19%		원자재	구리	418.1	422.6
원화	1,231.3	1,231.9	0.05%	금	1,950.5		1,928.4	1.1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FOMC, 0.25%p 인상. 추가 금리인상 가능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25%p 인상한 4.50%~4.75%로 제시.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에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연준의 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언급. 일부에서 연내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럴 일은 없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한다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아직 이를 전제로 금리인하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평가
- 다만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되었고 특히 임금과 비용에 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의견을 제시. 금년 경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제한된 속도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경제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5.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대답
-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3월 연방기금금리가 4.75%~5.00%로 최종금리를 형성하고 이후 11~12월에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비둘기파적(dovish)으로 변화(F.L.Putnam IM). 연준의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경기연착륙을 기대(Pictet AM)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2년 12월 구인건수, 전월비 증가. 금리인상에도 수요 우위 노동시장 지속

- 작년 12월 구인건수는 1101만건으로 전월(1044만건수) 대비 늘어났으며, 1인당 일자리는 1.9개. 이번 결과로 일자리 감소 없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연준의 경기연착륙 유도과 관련하여 긍정적 신호로 인식(FWDBONDS)
- 한편 1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비 10.6만건 늘어 전월(25.3만건) 대비 증가폭 감소. 다만 이번 결과는 극심한 겨울 날씨 관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고용상황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ADP의 Nela Richardson)

■ 미국 1월 ISM 제조업 PMI, '20년 5월 이후 최저. 수요 둔화 등에 기인

- 1월 ISM 제조업 PMI는 전월비 하락(48.4→47.4)하면서 3개월 연속 내림세. 이번 결과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제조업 제품 수요 약화 등이 반영.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 제조업 생산 등이 부진한 반면 고용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CPI), 전월비 상승세 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영향

- 1월 CPI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 대비 낮은 수준(9.2%→8.5%)이며,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비 보합(5.2%→5.2%)
-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을 이유로 ECB가 향후 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고, 기술적 이유로 독일 CPI가 이번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ECB의 현행 금리인상 경로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전월비 상승했으나 6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 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전월비 소폭 올랐으나(49.0→49.2) 예상치(49.5) 하회. 국영기업을 중점 조사하는 국가통계국의 1월 제조업 PMI는 상승했으나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조사 비중이 높은 차이신 제조업 PMI는 하락세 지속

■ 일본은행, 1월 국채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 수익률곡선제어(YCC)의 어려움 시사

- 1월 사상 최대인 182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으며, 이는 금리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에 대응하면서 발생.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여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 OPEC+, 현행 감산 방침 유지 예상. 경기침체 우려 등을 반영

- OPEC+의 감시위원회는 기존의 일일 200만배럴 감산 결정에 변화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 경기침체 위험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 감시위원회는 직접적인 의사 결정 권한은 없지만 산유국 장관급 회의에 영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 현지시각 기준)

- ECB 및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장의 낙관주의,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좌우 - The New York Times

(Wall Street's Newfound Optimism Faces a Test as the Fed Meets)

-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에 따라 미국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는 완화. 특히 최근 고용비용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에 대한 기대도 증가
- 하지만 주가상승 등은 연준의 정책변화에 의해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 작년에도 연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강경 대응 발언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 향후 연준의 태도에 기초하여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

■ 미국 소비자 지출, 임금 상승 등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US consumers are still riding high)

- 최근 기업실적 발표와 달리 명목 및 실질소비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제품 관련 소비 둔화에 주로 기인. 전반적인 명목 지출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 제조업 제품 소비는 약화되고 있으나 서비스 소비 증가로 전체 소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Visa의 Vasant Prabhu)
- 최근 발표된 고용비용지수에 따르면 임금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승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 또한 가계저축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소비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 실제로 양호한 소비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국내 민간기업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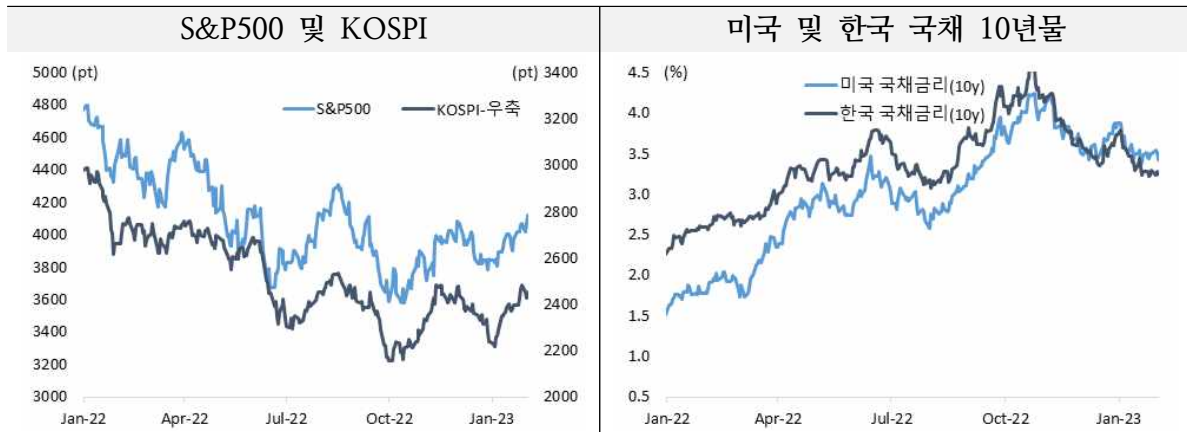
(Is China's About-Face Real? Better Ask the Chinese)

- 경제활동 재개 관련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최근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가가 급등.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과거 정부의 약속 파기가 수차례 있었기에 이번 정부 발표 역시 전략적이며 단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판단
- 이에 중국 내 민간기업은 당분간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 기업의 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이에 당국은 수감된 민간 기업이 석방, 황금주(Golden Shares)를 통한 민간기업 통제 중단,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나설 필요

* 황금주: 보유 수량/비율에 상관없이 기업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식

- **미국 경제, 경기회복·물가안정 기대에 따른 물가상승 재현을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Is the US Economy in Danger of Reheating?)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 이는 꾸준한 물가 하락 및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성장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기대감을 형성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
 - 또한 물가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기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실제 금리인하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존재. 최근 스페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강화는 물가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의 시험대에 직면 - 블룸버그**
(Bitcoin Rally Faces Test From Old Adage of 'Don't Fight the Fed')
- **일본 금융시장 경쟁력, 미래 산업과 정부 투자 등이 좌우할 전망 - Financial Times**
(Why it's finally time to take a look at Japan)
- **저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 독립적 기관을 통한 효과적 대응이 요구 - Financial Times**
(The world lacks an effective global system to deal with deb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